

2015. 1. Vol 232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축복의 땅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와
 태백의 줄기를 타고 소백에 이르러
 유순한 청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생명과 태양의 땅에
 을미년 붉은 해가 찬란히 솟았네
 산은 물을 넘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지만
 밝은 희망과 힘찬 용기와 넘치는 기상으로
 의연하게 바람과 어우러지는 산과
 누워서 노래 부르고
 누워서도 춤을 추는 유유했던 강물
 여기가 바로 청풍명월의 산하일세
 눈보라치면 떨지 않는 잎새 없네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 없네
 사랑과 인내로 버틴 나무가 아름답네
 더 밝고, 더 당당하게 앞길 열어가며
 궁지와 신념 속에 자신감 넘치는
 보람차고 행복한 이곳
 오늘따라 동산에 아침 햇살 유난히 찬란했던 것은
 축복의 또 다른 광영의 빛이라네
 희망과 축복의 빛이라네



반 영 호

- 부산일보 신춘문예당선
- 시 집 : 『별빛 그 찬란함이어』 외 9종
- 시조집 : 『그대 그리운 이 가슴에』, 『퇴화의 날개』, 『허공의 집』
- 동화집 : 『겉떡새와 꿀떡새』, 『달님이 된 박돌이』
- 수필집 : 『바람이 머물던 자리』
- 역 임 : 충북문인협회장, 음성예총회장

Contents



청풍호

아주담으로 인해 조성된 인공 호수이다. 이 인공 호수를 제천 지역에서는 청풍호라 부르고, 충주 지역에서는 충주호라 부르고 있다. 청풍호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담수량이 커 소양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청풍호는 제천 지역뿐만 아니라 충주의 동량면, 살미면, 중민동, 묵벌동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 04 신년사
- 05 2015년도 의회 운영계획
- 06 제336회 정례회 주요내용
- 08 충청북도 · 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심사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11 구제역 발생농가 국비부담률 상향조정 요구 건의문
- 12 제10대 의회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
- 13 국제외교
- 14 해외연수 성과보고회
- 15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2 주요 처리 의안
- 24 대집행부 질문 · 답변
- 26 5분 자유발언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의정일기



행불유경(行不由徑)의 정신으로 정도(正道)를 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에 찬 새해 새아침이 환히 밝았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여명을 연 힘찬 기운으로 우리 충북에 새로운 신화 창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도민의 소중한 부름을 받고 태동한 저희 제10대 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힘찬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뒤 돌아보면, 지난 6개월여의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휘몰아친 파고(波高)를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의원 서른 한 명의 꿈과 이상은 160만 도민과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웅비하는 것으로 충북의 주인은 오직 하나, 도민이라는 신념과 각오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뒷길이나 지름길 또는 샛길로 가지 않고 본도(本道)와 정도(正道)를 향해 가라’는 행불유경(行不由徑)의 뜻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정 철학으로 삼아 어떠한 역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한마지로(汗馬之勞)하는 자세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도민 앞에 실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에서 도민으로’ 통하는 대의(大義)의 길을 곳곳이 걸어간 제10대 의회로 도의회 의정 역사에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 민구 드림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역량 집중

충청북도의회는 올미년 새해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등 모두 11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경제 4%달성과 도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을 선도하고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고 도민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 연찬, 학술용역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 의원 입법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으로 충북발전과 도민행복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

회기	회 기	회의일수	주요내용	비 고
제337회 임시회	1.27(화) ~ 2.5(목)	10일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의	
제338회 임시회	3.3(화) ~ 3.13(금)	11일	□ 안건심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삼일절(3. 1)
제339회 임시회	4.21(화) ~ 4.30(목)	10일	□ 제1회 추경 □ 2014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충북소년체전
제340회 임시회	6.9(화) ~ 6.18(목)	10일	□ 안건심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가정의 달 ※결산검사(5~6월) ※현충일(6. 6)
제341회 정례회	7. 1(수) ~ 7.14(화)	14일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4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헌절(7. 7)
제342회 임시회	9.1(화) ~ 9.11(금)	11일	□ 제2회 추경 □ 안건심의	※추석연휴(9.26~29) ※유기농엑스포(9.18~10.11)
제343회 임시회	10.12(월) ~ 10.21(수)	10일	□ 2015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안건심의	※한글날(10.9) ※전국체전(10.16~22) ※뷰티엑스포(10.22~25)
제344회 정례회	11.12(목) ~ 12.21(월)	40일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6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2015년도 정리 추경(도, 교육청)	※정부합동감사(10~11월) ※성탄절(12.25)
•누 계 : 8회/116일(임시회 6회, 62일 / 정례회 2회, 54일) •상반기 : 4회/ 41일(임시회 4회, 41일) •하반기 : 4회/ 75일(임시회 2회, 21일 / 정례회 2회, 54일)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하고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3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새해 예산안 등 현안 처리

충북도의회 2014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국비부담률 상향조정도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015~201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5~2019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광희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에서 ‘충북도립대의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김인수, 박우양, 김학철, 이숙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 3군의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 ‘도민행복 마스터플랜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충북교육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각각 요구하는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타 주요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또한 김학철 의원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했고 이양섭·임희무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각각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연간 회기운영을 마무리 했다.

12월 19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임헌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승인 및 건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언구 의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후 6개월 동안 111건의 의안 처리, 26건의 의원 발의, 7건의 건의 등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다가오는 올미년 새해는 16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

2015년 충청북도 새해 예산

충청북도 새해 예산 3조 7590억원 확정

첨복단지 부지매입비 등 48개 사업 54억원 삭감

충청북도 새해 예산이 3조 7,590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36회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15억 6,470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7,590억 73만 1,000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1,519억 2,178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2,159억 91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지난해보다 496억 4,291만 9,000원이 증액된 5,430억 9,160만 7,000원이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1개 사업 2억원을 삭감해 총 예산액을 3조 2,157억 912만 4,000원으로 했고, 세출은 45개 사업 52억 7,80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2015년도 충청북도 예산〉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내부유보금등)	감	
총 계	3,759,000,731	5,216,356	5,416,356	3,758,800,731
일반회계	3,215,909,124	5,078,066	5,278,066	3,215,709,124
특별회계	543,091,607	138,290	138,290	543,091,607

삭감된 세계무역마스터십 준비단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한 50억 7,806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수요자위주의 대학홍보비 등 3개 사업 1억 3,829만원을 삭감하여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규정 미충족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2015년도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476억원이 감액됐으나 경상이전경비와 물건비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의적 확대해석을 자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시책사업을 제상할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의 도비 지원 및 자부담 비율이 서로 상이하여 행사의 성격·규모·시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야별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의 지역간 편차해소 등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소외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과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특히 사전절차가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또 12월 17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1%인 44억 3,299만원이 감액된 총 3조 8,173억 8,092만 5,000원이다. 일반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2개 사업 1억 3,348만 2,000원을 삭감했으며 세입에서 삭감된 암환자의료비 지원비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 등 1억 612만 6,000원을 제외한 2,73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해 총 3조 8,172억 7,479만 9,000원으로 확정했다.

2015년 충청북도교육청 새해 예산

도교육청 새해 예산 2조 452억원 확정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등 10개 사업 45억원 삭감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은 2조 452억원으로 확정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17억 3,231만원이 증액된 2조 451억 6,062만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중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등 45억 3,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41억 8,000만원, 혁신학교지원 2억 5,000만원, 맞춤형 연수 5,400만원 등이다.

행복씨앗학교는 매년 자체평가와 2년마다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되며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예비비)	감	
총 계	2,045,160,620	4,538,724	4,538,724	2,045,160,620
교육비특별회계	2,045,160,620	4,538,724	4,538,724	2,045,160,620

보조금으로 41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납부 하지 않아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무책임한 사립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쇄신책도 요구했다.

또 도의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2조 2,493억 615만원으로 확정했다.



주요시책 꼼꼼히 분석... 강도 높은 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120건, 건의·촉구 198건 지적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무감사는 2014년도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사전분석과 확인을 하는 등 감사규정에 따라 심도 있게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는 시정·개선요구 120건, 건의·촉구 198건 등 모두 31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추진, 의회소식지의 배부 수량 확대, 각 상임위원회 방청석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관련 안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해 줄 것 등 시정·개선요구 사항 27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해 분석할 것 등 건의·촉구사항 47건을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충청북도 홍보비와 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등 시정·개선요구 사항 30건, 도의회 보고 서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것과 각종 보조금의 보조비율과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보조사업자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등 건의·촉구사항 29건을 지적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

위 원 회 별	계	시정·개선	건의·촉구
계	318	120	198
의회운영위원회	3	0	3
정책복지위원회	74	27	47
행정문화위원회	59	30	29
산업경제위원회	62	25	37
건설소방위원회	59	11	48
교육위원회	61	27	34

산업경제위원회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충북도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등 시정·개선요구 사항 25건, 충청북도의 4% 경제달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에어폴리스 내 MR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 촉구·건의사항 37건을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옥천 제2의료단지 내 순환도로와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각 산업단지별 미분양분 인수와 관련해 일관성 부족을 지적한 뒤 청주 사천지구를 포함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등 시정·개선요구 사항 11건,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5%에서 10%까지 확대하여 저발전지역을 지원할 것과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마련 등 48건의 건의·촉구사항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2012~2013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물품구매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과 각종 위원회의 정상 운영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할 것 등 시정·개선요구 27건, 행복씨앗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력저하, 형평성 위배 등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및 남성 고용비율 제고 등 34건의 건의·촉구사항을 조치 요구했다.



구제역 발생농가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 농장에서 발생하고 살 처분된 돼지가 1만 2천여 마리에 이르자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청북도 지역은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축을 살 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진천군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1만2,000여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농장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으며,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어 앓다가 죽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구제역 예방은 축산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범 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열화 농장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고 도민을 위한 정책 실천

2014년 7월 8일 개원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각계각층의 도민의 소리를 담고, 직접 도민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원 후 충북도의회는 2회의 정례회와 3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총 5회에 78일간의 회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제10대 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 같은 기간 처리한 안건보다 14건이 증가한 1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가 같은 기간 동안에 제9대 의회 보다 5건이 많은 26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또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문’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문’ 등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120건, 건의사항 198건 등 총 31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행정운영이 도민의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질책 뿐 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감사우수부서를 표창하는 등 도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는 소통과 상생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했다.

제10대 의회는 제9대 의회에 비해 대집행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이 많았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제10대 의회는 도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도 늘렸다.

또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했고,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본회의 TV 중계방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를 제9대 5회 보다 많은 11회를 실시했다.

특히, 해외연수활동에 있어서는 사전설명회와 자체 귀국보고회를 개최해 모든 의원들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했으며, 의원연구 활동도 5건을 추진하는 등 성실히 공부하고 배우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 11월, 충북도의회와 우호교류를 맺은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해 청주~계림공항 간 직항로 개설과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인민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의 참가 요청, 충북경제자유구역에 광서장족자치구 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외교 성과도 창출했다.

무엇보다도, 제10대 의회의 두드러진 활동상은 스스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역대 의회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과감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직접 발로 뛰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교류협력 추진

청주~중국 계림 간 직항로 개설 등 3대 의제 협의



충청북도의회 이연구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해 청주~계림공항 간 직항로 개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3대 우호교류 의제를 논의했다.

충청북도의회 이연구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국제우호교류 지역인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해 평칭화 주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청주~계림공항 간 직항로 개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충북자유경제구역 등 '우호교류 3대 의제'를 논의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청주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중심에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쉽고, 충청북도의 정책적 지원의지로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청주공항~계림공항 간 직항로 개설을 제안했다.

대표단은 또 현재 "인천공항과 계림공항 구간에 연간 약 6~7만 명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계림 방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직항로가 개설된다면 양국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평칭화 주임은 "계림은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중국 최고의 관광지로 청주공항과 계림공항 간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양 지역의 경제·문화적 교류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화답한 뒤 "관련부서에 적극 검토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에 노선개설을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급속히 성장하는 유기농산업 선도를 위해 충북 괴산에서 개최되는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농업인 및 관련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농업분야 인적·물적 교류 확대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민대표대회는 "최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양 의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BT와 IT의 집적화를 통해 동북아 메디컬허브로의 도약을 마련 중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의 심장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광서장족자치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3대 의제가 열매를 맺는다면 충청북도와 광서장족자치구 양 지역 모두에게 번영의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개선... 효율적 시스템으로 탈바꿈

보고회 열어 우수사례 도정발전 자료로 적극 활용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10월말 실시했던 3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우호교류방문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해외연수는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해 처음 열리게 된 연수로, 지난 도의회의 해외연수와는 다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외연수가 의원의 전문성 향상 등에 효과적인 시간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연수제도’를 실시하여 해외연수 일정과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를 도내에서 먼저 연찬하고 해외와 비교 경험 하도록 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전 합동해외연수 연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혜례 교수를 초빙해 ‘위기아동에 대한 국내 아동복지정책과 유럽사례’ 연찬을 실시했으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어린이안전체험관’ 방문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황 청취도 병행해 실시했다.

또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해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청취했으며 지난해 10월 22일에는 봉명중학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화재대비훈련’ 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체험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사전 합동해외연수 연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연익준 교수를 초빙해 해외연수 주요 견학시설에 대한 친환경 시설운영 현황과 국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찬을 실시했으며 제천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최진중 교수를 초빙해 해외연수 국가의 소방서 배치 및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분석과 사례 연찬을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 등을 도의원 전체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의정 및 도정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의 일환으로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책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의 합동 해외연수와 건설소방위원회 해외연수,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우호교류 성과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이광희 의원은 ‘유럽 선진형 아동보호체계 및 학교 안전교육실태에 대한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임현경 의원은 ‘서구 유럽의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제로 태양광 에너지 활용현황과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서구 각국의 정책’을, 김학철 의원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우호교류 방문성과’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언구 의장은 “이번 성과보고회가 성과중심의 해외연수를 향한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없도록, 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우호교류 방문에 대한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제336회 정례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 10건 심사의결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36회 정례회 회기 중 3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청소년의 회교실 확대 등 3건을 지적했다.

이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87억 538만원보다 1억 5,313만원이 감액된 85억 5,225만원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9일 실시한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연간 회기 일정을 정례회 및 임시회를 8회, 회의기간을 116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46만원 감액된 86억 2,488만원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제3차 회의에서는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제337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열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충청북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월정수당을 현행 월 264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시점은 2015년 1월 1일이다.

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등의 규정이 불명확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한 것으로 의안제출일을 회기개시일 7일전(토요일·공휴일 산입), 대집행부질문 시기를 매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고 질문의원이 많을 때에는 제2차 본회의에 실시하기로 했다.

질문신청서 제출시기는 회기 개시일 5일전(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 질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이 우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람재 등 방문해 시설물 안전 점검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위원회 소관 12개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스마트 미래여성프라자의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 확보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또 충북도립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탈락 원인 및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학의 명예 실추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에 따른 합리적인 선정방안 마련과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단계적 재정지원 대책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충북학사 청람재와 여성발전센터, 충청

북도자연학습원, 충주의료원 등 도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을 방문해 조속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5일과 27일에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예산 1조 7,790억 여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15건, 31억 3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10일과 17일에는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일부 미흡한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보건의로 기반 확충 및 보건의로 서비스 질 향상 등 충북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계획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승인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충북학사 청람재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확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36회 정례회

청주공항 활성화 위한 협력강화 주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여객청사, 국제선대합실, 화물청사, 활주로 연장 시작지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36회 정례회 중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국제공항과 북부출장소 신축현장 등을 방문해 활주로 연장 및 공항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점검한 후 위원들은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집행부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 청주공항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또 제천 북부출장소 신축현장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남·북부 출장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집행기관과 충북문화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30건을 시정·개선 요구하고 각종 보조금의 보조비율과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안 마련과 충청도 3개 체육회의 가맹단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29건을 건의·촉구했다.

특히 소관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및 제출 충실도, 답변의 성실도 및 수감태도, 주요사업 등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 전년도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4개의 항목을 심사해 문화체육관광과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을 제언했다.

구제역 피해보상 국비 상향조정 건의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38일간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각종 현안을 심사·의결하며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했다.

먼저 11월 12일부터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69건의 감사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통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이 일용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충분한 계획성을 갖고 추진할 것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경제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수혜연령 폐지, 경제자유구역청 에어로 폴리스 지구조성사업 등 도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다양한 지적을 통해 도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2015년 당초예산 심사를 통해 경제통상국에 4% 경제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창출과 서민을 위한 햇

살론 국비지원 요청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정국 소관 심사에서는 행사성 예산의 과다 책정, 유기농엑스포 전시체험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총 12건에 2억 5,8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또한 김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것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종식 정책자문단장으로부터 청주공항 MRO 산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36회 정례회

지역균형발전 재원 추가확보 요구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응 장비 현황을 보고 받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화학소방차와 장비등을 점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통세 징수액을 5%에서 10%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 관련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각종 행사의 사후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국립암센터 분원 재유치에 대한 노력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실시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테러장비 확보현황에서 화학테러에 국한된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장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괴산호 유람선사고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과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실시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SOC관련 예산감소와 관련해 적

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와 시·군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도 공사 대부분 예산이 사업진척도와 무관하게 일률적, 나열식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6일 실시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오송전시관 건립과 관련해 전시성, 다발성 행사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할 것과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실시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양소방서 신설시 현재 단양119센터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한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안전체험관은 충북만의 특성 있는 체험관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교육훈련장비 확보를 통해 재난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다문화가족 교육정책 지원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물품 구매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27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행복씨앗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강구 등 34건을 건의 및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면밀한 사업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과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비 3억 6,459만 4,000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북도청 관계관과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6회 정례회

충청북도 ·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의원)는 지난해 12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15억 6,470만 4천원이 증액된 3조 7,590억 73만 1,000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1,519억 2,178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2,159억 91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지난해보다 496억 4,291만 9,000원이 증액된 5,430억 9,160만 7,000원이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1개 사업 2억원을 삭감해 총 예산액을 3조 2,157억 912만 4,000원으로 했고 세출은 45개 사업 52억 7,80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삭감된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한 50억 7,806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수요자위주의 대학홍보비 등 3개 사업 1억 3,829만원을 삭감해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517억 3,231만원이 증액된 2조 451억 6,062만원으로 세출예산 중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 등 45억 3,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한편 12월 17일 상정된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44억 3,299만원이 감액된 총 3조 8,173억 8,09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2개 사업 1억 3,34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에서 삭감된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등 1억 612만 6,000원을 제외한 2,73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총 3조 8,172억 7,479만 9,000원으로 확정했다. 12월 18일 실시한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2조 2,493억 615만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규정 미 충족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인수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 중 자문위원회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 받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12.31.일로 만료되며,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 및 적립금액이 미미하며, 지방채의 상환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우리도의 지역보건 현황과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내 · 외 보건자료 자원 활용에 충북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반도체전자과 강의실, 실험 · 실습실을 학생생활관(기숙사) 1개 층(2층)을 변경 사용하여 기숙사생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 공동강의실, 동아리실 등 학생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시설을 증축(미래관 3~4층)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안 개선을 통하여 농 · 어업인에게 기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 · 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옥 의원)

-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민선6기「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민 친화적, 합리적 · 탄력적 조직으로 전환
- 한시기구인 청원 · 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 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 유사기능 통 · 폐합에 의한 인력 감축과 농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 조정 및 청원 · 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함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의 유효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북도의 대표적 기업지원기관으로의 사업확대와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기관 명칭변경
- 법인 명칭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 이 법제화되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불필요 및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16대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임병운 의원)

-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지원과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사회통합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5학년도 학교 신설, 폐지 및 교명변경과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임현경 의원)

-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충북도립대 장·단기 발전 방안은?

이 광 희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도립대 발전계획 관련

[질문]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대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대학의 구조조정 실시, 그리고 홍보와 충북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1월 중에 바이오생명의학과를 오송으로 이전 추진 중인데 옥천 지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후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북도립대를 발전시키고 우리 충북도가 나가고자 하는 '바이오충북', '생명과학 충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숙사를 확충해서 많은 학생들이 옥천의 대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관 증축, 교사시설 확충, 학과 구조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전환·기술인력 양성 관련

[질문] 이제는 대학졸업 후에 평균 직업전환 기간이 대단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립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의 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업 재교육 내지 재취업과 관련된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인력 양성 기초트랙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예와 다르게 가급적 대학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학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퇴율 원인·전문대학 육성 관련

[질문] 도립대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높은 자퇴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학생들이 기계, 전자, 바이오생명의학 등에서 적응을 못 따라가는 것과 캠퍼스 환경이 미비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전국 7개 도립대와 비교하여 보면 중도탈락률이 낮은 편입니다.

[질문] 올해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이후 어떤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3개월간 준비를 하였으나 정량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미진했던 다섯 개 부분에서 2015년에 실적을 내서 2016년도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인력 양성 기초트랙 사업의 개요와 취소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작성 매뉴얼을 잘못 인지한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3명을 잘못 기재하여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연구책임자의 서약서를 받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연구책임자가 이에 불응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교원 업적평가 관련

[질문] 교원업적평가 관련하여 총장 취임 이후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새로 변경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교원업적평가로 보이는 등 항간에서는 총장에게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학교 최고 심의 의결 기관인 교수회에서 투표를 하여 89%가 찬성하고 11%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사행정에 있어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한 일은 없습니다.

태양광 산업 회복 기대할 수 있나?

김 학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태양광 · 청주공항 MRO 산업 관련

[질문] 충북도의 태양광산업은 유럽 경기악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조금 감축으로 이미 3, 4년 전부터 침체가 예견돼 왔고 또 미국발 셰일가스(shale gas) 혁명, 저유가 추세 장기화 등 태양광산업을 충북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는지 지사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60%가 충북에 집중돼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이 문제지만 2015년도에 121조 원으로 연평균 26% 정도 성장, 국내도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주공항 MRO 사업과 관련하여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인 하성용 사장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그동안 항공정비사업이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경남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KAI 본사가 사천지역에 있는 만큼 항공정비사업도 사천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KAI 측에서 하성룡 사장의 발언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발표가 있었고, 얼마 전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잘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실적 관련

[질문] 태양광업체 H사의 경우 ‘오창 외투지역에 외국인 직접투자 8억 불, 투자예정금액 88억 불에 1,000명 고용하겠다’ 라고 2011년 5월 충북도와 MOU를 체결해 현재 직원 3~4명만 근무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동 중으로 표기되었고 투자협약을 맺은 293개 업체 중 2개 업체 부도, 13개 업체 입주포기, 12개 업체 입주취소 등 이들 지역에서만 1조 2,000억 원의 투자 실적이 부풀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투자유치와 실제가동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 실적 발표는 MOU를 체결한 숫자로 발표하는 것이고 후에 실제투자자와 가동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관련

[질문] 경제통상국 예산현황을 보니 2014년도에 3.4%로 잡혀 있고 2015년 본예산에는 3.2%로 감소 했습니다. 또한 산업 ·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3.1%에서 2.4%로 감소,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31%에서 33%로, 농업분야는 12.8%에서 13%로 증가했는데 경제통상 분야의 예산을 축소시켜 놓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를 달성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증가율이 타부서 보다 적고, 경제통상국의 예산의 특성상 국가 공모사업들이 대개 1월~2월에 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 1회 추정 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원문화권 개발 관련

[질문] 중원문화권 특정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한지 5년이 경과했는데 2019년까지 민자 포함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비, 지방비 합쳐서 1,864억 원만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제천과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 예산 700~ 800억 원을 빼면 10%에도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국비확보 노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 등 대규모 사업들은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지만 국비가 지원이 아닌 지방비나 마찬가지로 지특계정 1,100억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하니 현재 방법이 없고 이에 정부에 광특계정 또는 순수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련

[질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시책추진 보전금이 유사한 성격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문제는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부3군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저는 오늘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이시종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기업 입주방안 및 충북대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특별한 역할과 옥천 제2의료단지 조속추진 및 도립대 학생 취업률

제고, 영동 산업단지 정상 추진 및 영동대의 정착을 위한 공공적인 역할 모색입니다.

둘째, 귀농·귀촌 특별지원 대책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입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료 환경보완,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넷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환경 혁신을 위한 특별 교육정책 및 출산을 확대를 위한 주택·보육·진학·취업률을 연계한 우대정책 마련입니다.

다섯째,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속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온천개발 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아이디어 접수, 주소 옮기기 운동 등 충북도의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으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비상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 마스터플랜 추진 촉구



박우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구하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과 관련하여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행복지수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지수는 최근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38개 나라별로 15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파라과이 국민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 대체로 중남미 지역 국민들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하위권인 90위에 그쳤는데 이는 이란, 룩셈부르크, 체코, 카자흐스탄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충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4% 경제달성을 조속히 실현함은 물론 평생복지·균형발전·생명농업·문화·안전과 소통을 포함한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어 전략적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 촉구



김학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 해 2월 온 도민의 환호와 자축 속에 이뤄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등 3개 권역 4개 지구에 총 9.08 km²의 면적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충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정주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지정 1년 9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시행자 조차 확정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동안 경자청장

스스로 호언했던 선도기업과의 구속력 있는 협약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자청장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태도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물 이해로 우군이 되어 협조해 줄 지방의회를 폄하하고 자치단체를 하급기관이라 지칭하는 등 망언을 일삼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순탄한 추진을 스스로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충북경제의 근간이 되어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을 위해 전상현 청장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길 요구하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혁신학교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21세기 아동·청소년 교육의 변화·혁신요구에 부응하여 추진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 편파적 논리와 자료만을 제시하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저하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입니다.

서울·경기·전북교육청의 연구결과(2013)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일반학교에 비해 줄고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예산낭비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창의경영학교 등에 연간 수억에서 수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4년 교육부 국감정책자료는 혁신학교에 별도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의 거점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교사들 중 교총소속 31%, 전교조소속 14%, 단체인가입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소통해야 합니다. 부디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보 급선무



이 양 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근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과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정착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문제가 대부분 이어서 몇 가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셋째, 혁신도시를 경유해 운행하는 시내·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기존 운행노선도 운행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입주기관과 거주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마트를 유치할 것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치 등의 명문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다섯째,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시 친천·음성군에 위치한 기관이 양군에서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통해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동력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초 부지에 도의회 청사 건립 지원 요청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독립청사가 없는 곳은 충청도의회 밖에 없고 집행부도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충청도청이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는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돼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고

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과 이연구 의장께서 도의회 신축 청사부지로 제안했던 중앙초등학교가 울량지구로 이전하는 것도 도심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충남도청 이전으로 도심공동화를 겪는 것처럼 충청북도의회 청사를 중앙초교부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면 도심공동화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청주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 청사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께 제안합니다.

조속히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의회 청사신축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청사건립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우호교류 의제와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참가,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흑룡강성 기업들의 투자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충청북도여성 발전센터를 방문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설을 확인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제천 북부출장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신축현장을 확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청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확인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심사기법 등 의정능력 제고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증평군 보강천에서 개최된 '제14회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 지난해 11월 21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농협물류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한마음 김장김치 담그기 나눔 축제'에 참석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소 금왕고등학교·오송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도의원들의 역할을 체험하는 제39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했다.



박 한 범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대의민주제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시행하게 되었다.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7월부터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시대가 부활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개성 있는 지역문화 창달, 주민 참여 확대 등에 기여해 왔으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및 갈등심화, 정치적 무관심, 공직사회 출세기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해도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에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바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앞으로 해결하고 더 노력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구성돼 있어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살림을 할 수 없도록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의 재정자치요, 3할의 행정자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민자치 이념 실현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던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역량강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는 행정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창의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생성할 수 있는 계기와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모세혈관들이 살아야 대동맥인 경제와 민생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경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골목의 민생까지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서울에만 집중되는 일방통행만 계속 된다면 동맥경화에 걸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갑오년 한해를 마감하며

정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2014년 갑오년을 맞아 백곡 저수지 뚝방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진천군민들의 무사평안과 소원성취를 기원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쉬움을 묻고 희망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1월에 진천에서 발생한 AI는 중부권 지역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키고 2월에는 날벼락 소식이 이집트에서 날아왔다. 2월 14일 나는 진천 IC 방역초소에서 방역근무 중 중앙방송 차량들이 진천 IC를 긴급하게 빠져 나가고 있었다.

무슨 큰일이 났구나 생각하고 알아보니 진천중앙교회 신도들이 폭탄 테러를 당해 진천 중앙교회로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 뉴스가 연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장식했다.

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잘사는 진천, 힘 있는 충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이 발생하여 생긴 인재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애도와 침통함 속으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기기도 하였다.

그 후 조용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통해 가까스로 충북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7월 7일 개원하여 말도 많

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진천 단설유치원과 행복 씨앗학교 등을 논의하고 충북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했다. 서로의 의견조율을 거쳐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자고 우리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보낸 한해이기도 했다.

또한 진천에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우석대학교를 개교하였고, 진천·음성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되면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아울러 진천국가 대표선수촌과 충북 체육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 사고 발생과 지역의 현안해결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군민들은 2014년 12월 31일밤 제야의 종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아쉬운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 새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 희망의 을미년을 맞이하여 보자고 다짐해 본다.

갑오년 한해를 보내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함께 도움을 주신 충북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행복과 건승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